

## 중세의 Cross Dressing이란 무엇인가?

Shunichi Akasaka

### 1. 현재와 과거의 변복현상

중세의 변복 현상은 중세인의 심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날의 변복 현상은 주로 의학과 심리학 분야의 대상으로, 특히 남성의 여장 변복은 심리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여성의 남장은 논란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은 것은 사람들은 그다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남장을 한 여성들이 뮤지컬 공연을 하곤 한다. 그러나 남자가 여장을 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서양 중세에서는 마상 경기 대회에서 참가자가 여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사 Cypriot도 여장을 하고 마상경기에 참여하였다. 1226년에 개최된 마상경기과 관련해서 Philippe de Navarre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긴다: “화려했던 마상경기에서 기사들은 여장을 하고 경기에 참여했다. 수녀의 복장을 하기도 하였고, Lancelot, Tristan, Palamedes로 분장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발되지 않았고, 이는 당연히 법에 어긋나는 행동도 아니었다. 단지 웃고 즐기기 위한 것뿐이었다. 실제로 여장을 하고 여행을 하였던 실존인물( a real, existing man)도 있었는데, Ulrich von Liechtenstein이 지은 Frauendienst에서 울리히는 여장을 하고 많은 마상경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는 비판 받기보다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었고 많은 경기에서 승리를 한 훌륭한 기사로 기억되었다.

반면 몇몇 여장 남성들이 고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튀르의 그레고르가 작성한 History of the Franks에는 수녀의 복장을 하고 수녀원에서 거주했던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 때 한 의사가 나타나 “어린 시절 허벅지 부위를 심하게 다친 소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소년을 거세하였다”고 증언을 하면서, 의문을 풀리게 된다. 나는 이 소년이 비록 고환이 없으나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중세인들에게 있어서 고환 없는 남자는 여자에 더 가까웠다.

또 다른 사례는 소설 Silence에 등장하는 사례로,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

에서 여장을 한 남자는 왕의 궁정에서 발견되는데, 수녀로 변장한 이 남자는 여왕의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처형된다. 그레고르의 사료에 등장하는 남자와 Silence의 이 사람은 모두 남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만일 여자가 남장을 하고 여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서 발견된다면,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

## 2. 중세의 남장여성

1) 중세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성녀전 Legeda Aurea에는 50여 명의 성녀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중 6명은 남장 변복자였다. 반면에 여장을 한 남자 성인은 찾을 수 없다. 많은 성녀들이 이름만 언급되어 있으나, 이 6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상세한 기록이 전해진다. 이는 아마도 Legenda Aurea의 저자인 Jacobus de Voragine가 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Pelagia의 경우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역사학자인 Bullough가 남장을 한 성녀의 전형으로 지적한 바 있다. 안티오키아의 최고위 가문 출신의 펠라기아는 Nonnos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아,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로 결정한다. Nonnos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희사한 뒤에 남자로 변장을 하고 Pelagius라는 이름의 은수자로 살기 위해서 Mt. Olive로 향한다. 그녀가 죽고 그 지역 주교가 그녀의 장례를 거행하던 중 펠라기우스가 남자라는 사실이 발견된다. Jakobus는 이에 대해서 펠라기아는 안티오키아의 고귀한 가문 출신이라고 기록하지만, 시리아 판의 성녀전에는 그녀가 부유한 창녀였다고 전한다. 이 시리아 버전에 의하면, 펠라기아는 세례를 받고 Nonnos에게 그의 옷을 그녀에게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Sandra Lowerre에 의하면, “이로써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Salisbury는 그녀는 기독교 여신도가 되기 위해서 그녀로부터 기대되는 역할을 거부하였다고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후원자와 비슷하게 되고자 노력하였고, 그래서 그의 옷을 걸쳤던 것이다. 더 나아가 그녀는 남성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 정체성(Gender)을 포기하였다.

이와 관련해 Hotchkiss는 “펠라기아의 목적은 내시처럼 자발적으로 무성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asexuality). 그러나 그녀가 남자의 옷을 걸치면서 전적으로 성정체성을 포기하려 했다는 호치키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녀의 목적은 무성성이 아니라 변복을 통해서 남자가 되고자 했던 것

이다.

2) 마리아: 마리아의 아버지는 수도원으로 입회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린 딸을 남자아이로 변장시켜서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다. 마리노스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나중에 음모를 받게 되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 그가 그녀 아들의 아버지라는 것이다. 이 사건이 있는 뒤에 마리아는 수도원에서 추방된다.

호치키스에 의하면 중세에는 34명의 남장으로 변장한 성녀들이 있었다. 이 중 Hildegund of Schoenau는 실존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실존여부보다는 중세인들은 남장을 하고서 수도원에 들어간 여성들도 성인으로 공경했다는 사실이다.

Bullough는 중세에서 남장여성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이는 오히려 장려의 대상이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중세에서 여성의 남장은 그녀를 더 고결한 존재로 만드는 방편으로 이해되었다.

Hotchkiss는 남성성을 획득함으로써만이 여성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는 여성이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었다.

Marie Delcourt는 남장은 여성이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는 상징성을 지니며, 이는 여성의 자기 주장(the women's asserting)이었다.

그러나 나는 Bullough, Hotchkiss, Delcourt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 3. 중세 시대의 남장 여성의 의미

#### A. 기독교적 관점

성경은 남녀 모두에게 변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세의 교회법전에는 여성의 남장 행위만을 금지하는데, 이 경우 여성은 파문에 처해진다. 이러한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왜 중세의 여성들은 남장 변복을 하였는가?

#### B. 여성 남장의 원인

암브로시우스는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여성이고, 신앙심을 가진 여성은 남성적 존재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어머니는 옷으로만 봐서는 여성이지만, 신앙심에 있어서는 남성이었다고 한다. 도마 복음에도 스스로를 남자로 만드는 모든 여성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기록되었다.

중세인들은 여성이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고대 이래로 남자와 여성의 몸(Body)에는 차이가 없으며, 중세 의학자들은 고대의 이러한 의학적 전통을 계승하여 One Sex Model Theory을 고안해 낸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생물학적 성(Sex)의 소유자이지만, 사회적 성(Gender)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은 쉽게 남성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18세기까지 이어진다.

Joan Cadden에 의하면, 중세인들은 생물학적 성을 나누는 결정적인 요인을 ‘온도’로 보았고, 여성의 몸이 뜨거워지면 남성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세 세 여성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뜨겁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 c. 왜 중세의 여인들은 남장을 하였는가?

중세인의 관점에서, 인간은 남성적 남자에서 여성적 여자로 옮겨가는 존재였다. 중세인은 성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화가 가능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남성이 될 수도 있었다.

중세에서 생물학적 성은 사회적 성보다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생물학적 성은 변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성은 기온과 습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여성도 남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었는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구거나, 십자가로 몸을 누르거나 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만일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이 사회적으로 남성적인 존재로 여겨진다면, 만일 여성이 남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여성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사회에서 그녀는 남자가 되고자 원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은 남장변복을 통해서 ‘남자’가 되고자 하였다.

Bullough, Hotchkiss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너무 사회학적인 접근과 현대적 사고의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이성중심적인 현대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중세인은 그다지 이성적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중세 여성의 변복 행위를 이성적인 잣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된다.